

##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박 명 호\*\* · 박 찬 열\*\*\*

### 논문 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새로운 지표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OECD 31개 회원국과 1990년에서 2017년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선정하여 한국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행복의 긍정적 요인 개선은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요인 개선은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만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유사 특성 국가들의 경우 행복의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표 체계가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주제어: 한국인, 행복, 지수, 긍정요인, 부정요인, OECD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0

투고 일자: 2019. 7. 30. 심사 및 수정 일자: 2019. 8. 30. 게재 확정 일자: 2019. 9. 20.

\* 이 글은 2017-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본고는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중 저자들이 참여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고의 마무리 과정에서 세심하게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와 논문 심사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주신 심사위원장께 감사를 드린다.

\*\* 제1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mhpark@hufs.ac.kr

\*\*\* 교신저자,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연구위원, e-mail: pcy@gni.re.kr

## I. 서 론

### 1. 한국인의 행복 측정을 위한 지표 만들기

한국은 지난 60여년에 걸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이다. 개발년대에는 경제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세계은행으로부터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성장 잠재력의 하락과 형평성의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삶의 질은 개인당 소득, 수명, 교육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UN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인은 점차로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고령층은 빈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수저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양극화 및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삶에는 행복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행복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행복 측정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선행 연구가 있다(한국삶의질학회, 2017; 김승권 외, 2008; 강성진, 2010; 심수진, 2016). 그런데 이들 연구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지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삶의질학회를 포함한 일부 연구의 경우는 한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반면, 나머지 연구는 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특징을 OECD 회원국과의 1990~2017 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를 OECD 국가로 한정 한 점은 사회통계의 시계열 일관성 때문이다.

### 2. 지표체계의 특징

OECD의 Better Life Index, UN의 World Happiness Indicator 등 국가 간 비교를

---

1) UN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2015년 5.984점에서 2018년 5.875점으로 150여개 국가 중 47위에서 57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지향하는 기존 행복지표는 행복의 긍정적 요인만을 지표 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 접근은 기본적으로 행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다음 그 변수의 수준이 국가별로 어떤지 비교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행복은 주로 행복의 긍정적 요인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접근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OECD 국가의 경우에는 합당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런 접근을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하는 연구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대부분 개도국 또는 일부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 혹은 양극화 현상이 국민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국민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higehiro Oishi, Selin Kesebir, and Ed Diener (2011)에 따르면 한 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행복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같은 소득 수준의 국가를 비교하는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불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행복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 (조병구 외, 2018). 본고는 이들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행복에 긍정 및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만들었고, 과연 한국인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어떤 요인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3. 지표 구조

본고의 지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한편으로는 행복에 긍정, 부정적으로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우선 대분류는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소득 수준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격차 확대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국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제로 기존 지표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행복은 물질적 기반 외에도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분류는 물질 및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긍정 요인의 물질 기반으로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환경 등 국민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 기반을 포함한다. 긍정 요인의 사회적 기반으로는 가족, 사회관계, 공동체생활, 문화여가생활, 안전 등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부정적 요인의 물질적 격차는 소득격차와 고용격차, 사회적 격차는 성별 격차와 세대갈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격차의 경우 보다 다양한 격차의 내용을 담고 싶었으나 국가 간 시계열 자료의 제약으로 남녀 간 및 세대 간 격차만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지표체계는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분류 2개, 중분류 4개, 소분류 15개로 구성된다.<sup>2)</sup>

<표 1> 국민행복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변수
긍정적 요인	물질적 기반	소득	1인당GDP
		고용	고용률
		교육	교육수준, 취학률
		건강	기대수명
		주거	주거지수
		환경	미세먼지
	사회적 기반	가족	기혼율, 출산율
		사회관계	기관신뢰, 타인신뢰, 건전한 관계
		공동체생활	사회참여
		문화여가생활	근로시간, 문화여가시간
		안전	자살률, 범죄율, 심리적 안전
부정적 요인	물질적 격차	소득격차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고용격차	임시직 근로자 비중
	사회적 격차	성별격차	성별 교육격차, 고용격차, 임금격차
		세대갈등	노인부양비, 청년실업, 노인빈곤

자료: 연구진 작성.

## II. 데이터 특성 및 분석방법

지표분석을 위한 자료조사는 OECD 주요 회원국 31개국<sup>3)</sup>을 대상으로 1990-2017

2) 지표 체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의 부표를 참조. 부표에서는 데이터의 출처, 특성 및 결측치 추정 방법 등을 정리하였음.

3) 가용 통계가 부족하고 국가 규모가 매우 작아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는 Estonia 등 최근 OECD에 가입한 유럽 소국은 제외하였음. 31개 국가는 다음과 같음: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i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년 기간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표 분석에 사용한 세부변수는 신뢰도 높은 국제기구 및 국제 사회조사 자료를 위주로 활용하였다. 지표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OECD 회원국 31개국의 1990-2017년 자료인데 변수에 따라 특정시기 또는 특정 국가의 자료가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불완전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이다. 따라서 지표분석을 통해 국가별,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측값(missing values)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1990년 이후 일정 시점까지 자료가 없는 경우나 마지막 관측값(observed values) 이후 2017년까지 자료가 없는 경우는 외삽법(extrapolation)을 적용하였고, 관측값이 존재하는 특정 시점 사이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 내삽법(interpolation)을 통해 추정하였다.

세부변수들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경성자료(hard data)와 서베이 조사에 의한 연성자료(soft data)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결측값 추정 방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우선 선형함수(linear function) 추정 방법인데 이는 해당 변수의 전체 분석기간 동안 국가별 유효한 관측값을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 추정치(linear fitted value)로 장기추세를 반영한 결측값 추정방법이다. 이어서 계단함수(step function) 추정방법인데 이는 결측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가장 최근 관측값으로 결측값을 대체하는 것이다. 경성자료의 경우 장기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선형함수 추정방법을 적용하되, 외삽추정의 경우 추정기간이 길어질수록 과다 혹은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삽추정 방법은 계단함수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서베이 조사 자료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장기추세를 가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계단함수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지표에 활용한 각 변수들은 단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일 지수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범위로 통일시키는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변수의 정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Osberg and Sharpe (2005)의 선형 정규화 방법(Linear Scaling Method; LSM)을 사용하였다.

$$\text{LSM 정규화 지수} = (\text{Observed value} - \text{Min}) / (\text{Max} - \text{Min})$$

$$(\text{이때, Max} = \text{global Max} + |\text{global Max} \times 10\%|, \text{Min} = \text{global Min} - |\text{global Min} \times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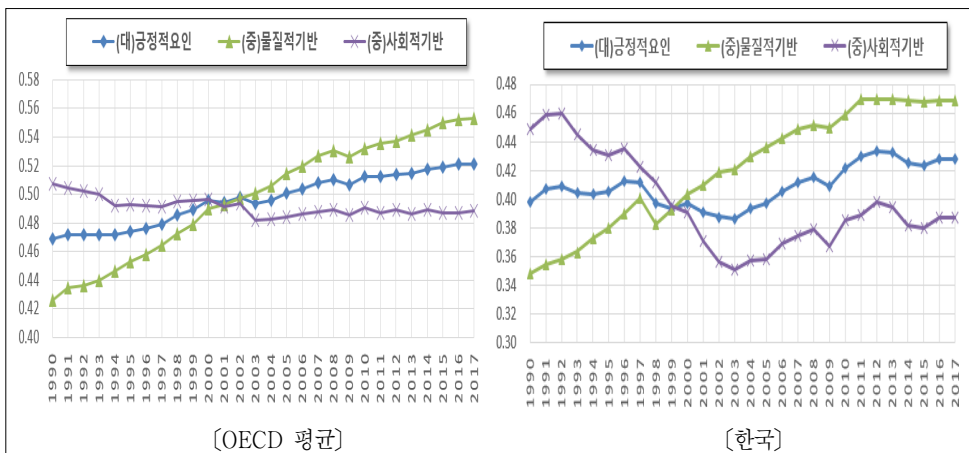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위 방법은 대표적으로 유엔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등 다양한 지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최대-최소 정규화 방법(Min-Max normalization)을 변형한 것으로 기존 최대-최소 정규화 방법에 비해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은 변수의 정규화에 보다 더 적합하다. 이와 같은 정규화 과정을 거친 LSM 지수는 각 변수의 관측값을 0~1 범위의 값으로 변환하여 단일지수의 작성 및 국가 간 비교, 시계열 변화 분석 등이 가능하다. 동시에 LSM 지수를 사용한 선형 정규화 방법은 Z-score로 대표되는 표준화(standardization) 방법에서 종종 나타나는 평균 수렴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하다.

### Ⅲ. 글로벌 트렌드 분석

이하에서는 지표 시산 결과를 활용하여 1990-2017년의 약 30여년 간 OECD 회원국들의 국민행복 수준 및 이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긍정적 요인의 OECD 평균 추이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분류 수준에서 볼 때, 1990-2017년 기간 물질적 기반은 연평균 0.97% 증가율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사회적 기반은 -0.15% 증가율을 보이며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기반을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보면 점차 개선 속도가 완만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기반은 90년대 비해 최근에 악화 속도는 더디지만 전체

〈그림 1〉 대분류 긍정적 요인과 해당 중분류 지수의 OECD 평균 및 한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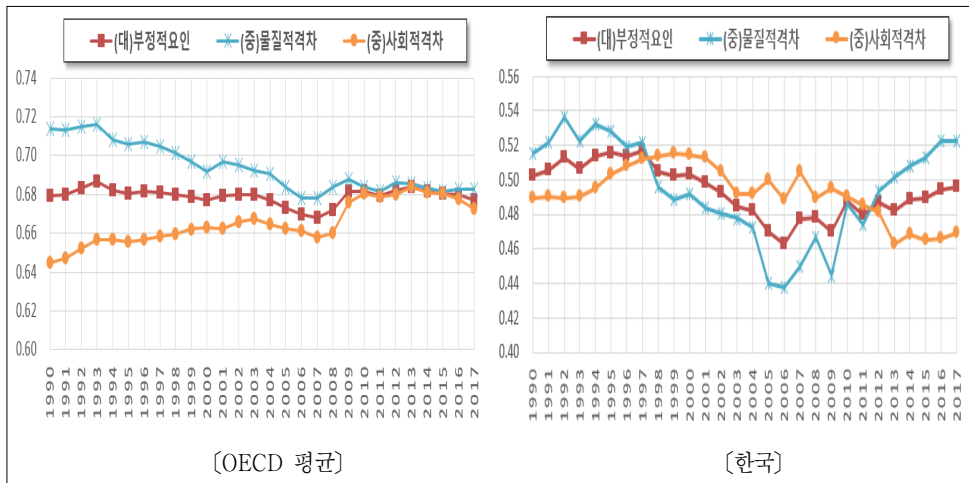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기간에서 매우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한국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수치는 다소 낮으나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한편, <그림 2>에서 국민행복지표를 구성하는 부정적 요인<sup>4)</sup>의 OECD 회원국들 평균 추이는 전기간 연평균 -0.01% 증가율로 매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물질적 격차는 긍정적 요인의 물질적 기반과 달리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기별로는 90년대와 2010년 이후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00년대에는 양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사회적 격차는 다소 악화되는 반면 물질적 격차가 개선되며 부정적 요인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대분류 부정적 요인과 해당 중분류 지수의 OECD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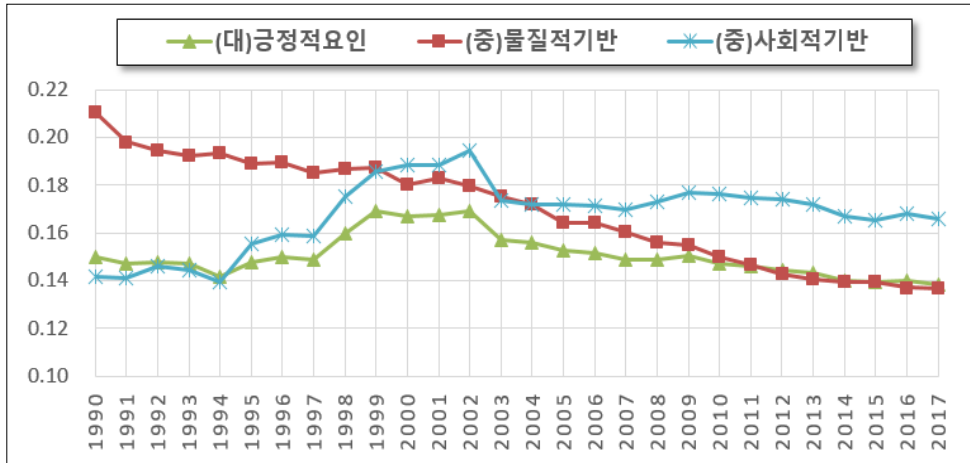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활용해 영역별 OECD 회원국 간 격차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우선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값으로 시계열 변화를 통해 변동계수가 점차 커질 경우 OECD 회원국 간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 OECD 회원국 간 국민행복지표의 수준이 수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분류 긍정적 요인의 변동계수 추이 변화

4) 격차를 나타내는 요인 중 성별교육격차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 변수는 모두 값이 적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데이터 가독의 편의를 위해서 정규화 과정에서 격차 관련 모든 세부변수는 값이 클수록 개선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세부변수는 긍정 요인이나 부정 요인 모두 값이 클수록 개선된 방향성을 나타낸다.

를 보면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변동계수가 커져 OECD 회원국들 간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변동계수가 하락하여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전체 분석기간 OECD 회원국들의 국민행복에 대한 긍정적 요인의 격차는 점차 수렴해 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대분류 긍정적 요인과 해당 중분류 지수의 OECD 변동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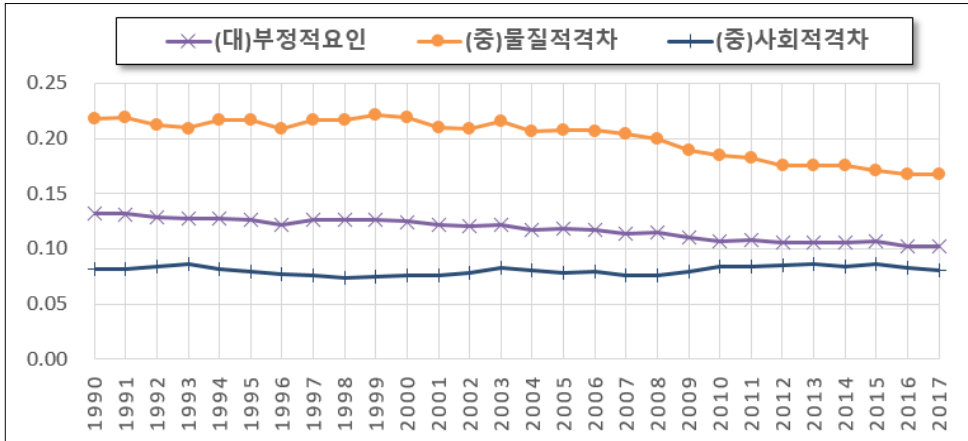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대분류 긍정적 요인을 구성하는 중분류 지수들의 변동계수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중분류 물질적 기반은 OECD 회원국 간 격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반의 경우 1990년에 비해 최근의 회원국 간 격차는 오히려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의 경우에도 1990년대를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변동계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역시 회원국 간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요인에 대한 변동계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동계수 추이는 대분류 부정적 요인의 경우에도 긍정적 요인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OECD 회원국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시기에 걸쳐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대에 격차 완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대분류 부정적 요인과 해당 중분류 지수의 OECD 변동계수 추이



자료: 연구진 작성.

이상에서처럼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0~2017 기간 대분류 및 중분류 수준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 요인의 물질적 기반은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지만 부정적 요인의 물질적 격차는 악화되었다.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등 긍정적 요인은 지난 20년 간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소득 격차 및 고용 격차는 다소 악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조병구 외(20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행복지표 중 사회적 기반을 나타내는 세부지표는 지난 20년 간 다소 악화된 추세를 보였다. 한편, OECD 회원국 간 지표의 수렴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물질적 기반은 회원국 간 수렴 현상을 보였지만 사회적 기반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회원국 간 물질적 격차는 개선된 반면 사회적 격차의 간격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한국의 위상

### 1. 한국의 영역별 지수 변화 추이

영역별 지수 변화를 요약한 〈표 2〉에서 한국은 분석기간 동안 대분류 긍정적 요인은 연평균 0.27%의 증가율을 보이며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부정적 요인은 -0.05%의 증가율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수준과 비교해 보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증가율 보다 낮은 개선 속도를 보이며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긍정적 요인 변화추이는 90년대에는 -0.03% 증가율을 보이며 다소 악화된 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OECD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개선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부정적 요인의 경우 90년대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00년대 들어 비교적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최근까지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한국의 대분류 영역별 지수 변화

구분	지수값			연평균증가율(%)		
	연도	OECD 평균	한국	기간	OECD 평균	한국
긍정적요인	1990	0.469	0.398	90-00	0.55	-0.03
	2000	0.496	0.397	00-10	0.33	0.60
	2010	0.512	0.422	10-17	0.25	0.21
	2017	0.521	0.428	90-17(전체)	0.39	0.27
부정적요인	1990	0.679	0.502	90-00	-0.03	0.02
	2000	0.677	0.503	00-10	0.07	-0.31
	2010	0.682	0.488	10-17	-0.10	0.23
	2017	0.677	0.496	90-17(전체)	-0.01	-0.05

자료: 연구진 작성.

한편, 중분류 수준에서 한국의 국민행복지표 변화 추이를 〈표 3〉에서 살펴보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 물질적 영역에서는 양호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적 영역에서는 감소세를 보이며 상반된 모습이 두드러진다. 중분류 수준은 물질 기반 및 사회적 기반 모두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물질적 기반과 물질적 격차는 분석기간 동안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반의 경우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하였으나 분석기간 연평균 -0.54% 증가율을 보이며 OECD 평균 수준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물질적 기반과 물질적 격차는 1990년과 2017년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그 간격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사회적 기반과 사회적 격차는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면서 그 격차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의 중분류 영역별 지수 변화

구분		지수값			연평균증가율(%)		
		연도	OECD 평균	한국	기간	OECD 평균	한국
긍정적요인	물질적기반	1990	0.426	0.348	90-00	1.42	1.49
		2000	0.490	0.404	00-10	0.82	1.28
		2010	0.532	0.458	10-17	0.56	0.32
		2017	0.553	0.469	90-17(전체)	0.97	1.11
	사회적기반	1990	0.508	0.448	90-00	-0.22	-1.37
		2000	0.497	0.391	00-10	-0.11	-0.14
		2010	0.491	0.385	10-17	-0.08	0.07
		2017	0.488	0.387	90-17(전체)	-0.15	-0.54
부정적요인	물질적격차	1990	0.714	0.515	90-00	-0.31	-0.46
		2000	0.692	0.492	00-10	-0.11	-0.12
		2010	0.684	0.486	10-17	-0.02	1.05
		2017	0.683	0.523	90-17(전체)	-0.16	0.06
	사회적격차	1990	0.645	0.490	90-00	0.27	0.50
		2000	0.663	0.515	00-10	0.26	-0.48
		2010	0.680	0.491	10-17	-0.17	-0.63
		2017	0.672	0.469	90-17(전체)	0.15	-0.16

자료: 연구진 작성.

## 2. 한국의 위상: 상대적 지위

한국은 행복지표의 관점에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한국은 긍정적 요인의 경우 27개국 중 2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정적 요인은 30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긍정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하위권 수준이다. 그 중 물질적 기반은 23위 수준을 유지하였고, 사회적 기반은 1990년에는 21위로 중위권 국가였으나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여 2017년에는 25위로 악화되었다. 물질적 기반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는 소득, 건강과 같이 순위가 크게 개선된 영역도 있고, 고용, 교육 영역은 소득, 건강 영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질적 기반에서는 주거, 환경 등이 하위권 수준이며 최근까지도 순위가 더욱 하락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기반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는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순위가 가장 높았는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안전 영역 역시도 순위가 크

게 하락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문화여가생활 영역이 유일하게 순위가 소폭 개선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표 4〉 행복지표로 살펴본 한국의 위상 변화

구분 <sup>1)</sup>			지수값 연평균 증가율 90-17 (%)	순위					상대수준 <sup>3)</su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990	2000	2010	2017	순위변화 <sup>2)</sup> 90-17	1990	2017
긍정적요인 (27)			0.27	23	23	23	23	~ 0	L	L
물질적기반 (28)			1.11	22	23	23	23	~ -1	L	L
소득 (31)			7.80	28	25	22	20	↑ 8	L	M
고용 (31)			0.00	10	14	10	11	~ -1	M	M
교육 (31)			1.76	15	14	11	17	~ -2	M	M
건강 (31)			2.22	26	25	16	10	↑ ↑ 16	L	M
주거 (28)			0.67	22	24	24	24	~ -2	L	L
환경 (31)			-0.50	26	28	29	30	↓ -4	L	L
사회적기반 (31)			-0.54	21	26	27	25	↓ -4	M	L
가족 (31)			-2.61	5	6	13	12	↓ -7	H	M
사회관계 (31)			-0.70	21	27	24	25	↓ -4	M	L
공동체생활 (31)			-0.45	22	23	24	24	~ -2	M	L
문화여가생활 (31)			1.55	30	29	28	29	~ 1	L	L
안전 (31)			-0.66	15	26	30	30	↓ ↓ -15	M	L
부정적요인 (30)			-0.05	29	29	29	30	~ -1	L	L
물질적격차 (30)			0.06	27	27	28	26	~ 1	L	L
소득격차 (31)			-0.52	21	24	27	27	↓ -6	M	L
고용격차 (30)			0.98	28	28	27	26	~ 2	L	L
사회적격차 (31)			-0.16	31	31	31	31	~ 0	L	L
성별격차 (31)			0.93	31	30	31	31	~ 0	L	L
세대갈등 (31)			-1.10	28	29	31	31	↓ -3	L	L

주: 1) 괄호안은 관련 자료가 없는 결측 국가를 제외하고 지수를 계산한 국가의 수를 의미함.

2) 분석기간 중 순위가 10계단 이상 증가 ‘↑↑’, 3계단 이상 증가 ‘↑’, 10계단 이상 감소 ‘↓↓’, 3계단 이상 감소 ‘↓’, 2계단 이내로 변동한 경우 ‘~’로 표기함.

3) 상대수준은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30% “H(High)”, 중위 40% “M(Middle)”, 하위 30% “L(Low)”로 표기함.

자료: 연구진 작성.

한편, 부정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주로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물질적 격차의 순위는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었다. 다만, 물질적 격차의 구성 요소 중 고용격차 순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격차 순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소득 격차는 1990년에는 31개국 중 21위로 중위권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여 최근 2017년에는 27위에 위치하였다. 물질적 격차 중 고용격차는 최근 26위로 하위권 수준이기는 하나 1990년 28위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 그나마 양호하게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격차를 구성하는 성별격차와 세대갈등은 모두 분석 대상 31개국 중 최근 31위를 기록하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갈등의 경우 1990년에는 28위로 최근에 비해서는 좀 더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점차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V. 행복 결정 요인 분석

### 1. 군집 분석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OECD Better Life Index와 UN World Happiness Report 등 유사 행복 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행복 수준 측정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해 본 논문의 행복지표 대분류 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래의 모형을 추정하여 국민 행복 수준(*Happiness*)은 긍정적 요인( $P$ ) 뿐 아니라 부정적 요인( $N$ )에도 영향을 받는지를 검정하였다.<sup>5)</sup> 이러한 추정결과를 통해 ‘한국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Happiness_{i,t} = \alpha_0 + \alpha_1 P_{i,t} + \alpha_2 N_{i,t} + \varepsilon_{i,t}$$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요인을 포함한 ‘한국형 행복지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별로 위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별 분석을 시행하기

5) 중분류 및 소분류 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추정도 시도해 보았으나, 뒤에서 설명할 한국과 유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추정에서는 보다 많은 계수를 추정하기에는 관측치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여 대분류 지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만을 기술하였다.

에는 시계열 기간이 짧다.<sup>6)</sup> 따라서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 외에도,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사국가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행복지표 영역별 상중하 그룹을 분류해보고 군집분석도 실시하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모두 하위 30%에 속하는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이 있다. <표 5>와 <표 6>에서 한국은 1990년과 2017년 모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분석대상 국가들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과 함께 1990년에 두 영역 모두 하위권에 포함된 국가는 칠레, 멕시코, 포르투갈이 있으며, 2017년에는 칠레,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이 두 영역 모두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는 1990년에는 덴마크, 네덜란드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덴마크 외에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표 5> 상대적 수준 그룹별 국가 분류(1990년)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상위30%	중위40%	하위30%
상위30%	Denmark (3 , 8) Netherlands (5 , 5)	Australia (8 , 11) Canada (7 , 14) Norway (2 , 15) Sweden (1 , 12) Switzerland (6 , 21) USA (4 , 17)	-
중위40%	Luxembourg (13 , 4)	Austria (15 , 13) Finland (9 , 20) France (14 , 10) Germany (10 , 19) UK (11 , 18)	Greece (19 , 24) Ireland (17 , 22) Japan (18 , 23) Spain (16 , 27)
하위30%	Czechia (22 , 2) Hungary (26 , 3) Italy (21 , 9) Poland (27 , 6)	-	Chile (25 , 30) Korea (23 , 29) Mexico (24 , 28) Portugal (20 , 25)

주: 괄호안의 숫자는 순서대로 긍정적 요인의 순위, 부정적 요인의 순위를 나타냄.

자료: 연구진 작성.

6) OECD Better Life Index는 2013-2017년 기간, UN World Happiness Report는 2005-2017년 기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널자료가 아닌 단일 국가 시계열 자료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는 관측치 수가 너무 작다.

〈표 6〉 상대적 수준 그룹별 국가 분류(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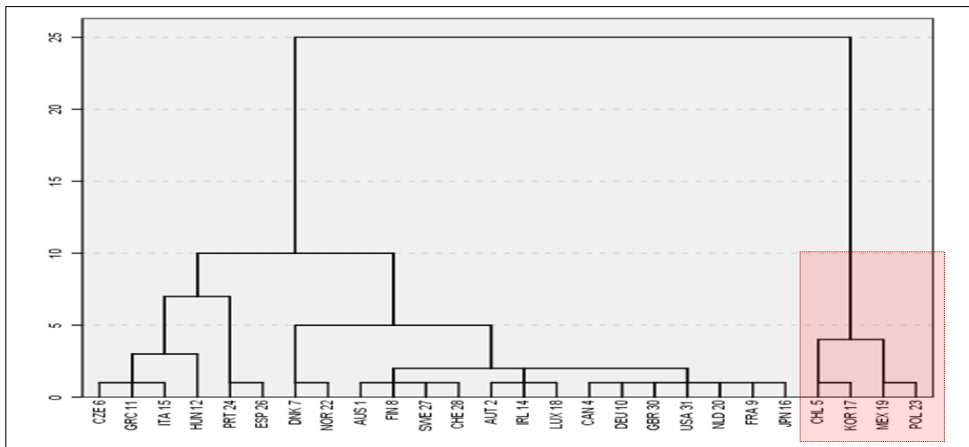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상위30%	중위40%	하위30%
상위30%	Australia (5 , 9) Denmark (1 , 4) Ireland (8 , 8) Norway (2 , 1)	Finland (6 , 11) Sweden (4 , 16) Switzerland (3 , 18)	-
중위40%	Austria (12 , 7) Luxembourg (14 , 3)	Canada (9 , 14) France (16 , 13) Germany (11 , 19) Japan (18 , 21) UK (13 , 17) USA (15 , 20)	Italy (19 , 22) Netherlands (10 , 23) Spain (17 , 25)
하위30%	-	Czechia (22 , 15) Greece (21 , 10) Hungary (26 , 12)	Chile (25 , 29) Korea (23 , 30) Mexico (27 , 26) Poland (24 , 28) Portugal (20 , 27)

주: 괄호안의 숫자는 순서대로 긍정적 요인의 순위, 부정적 요인의 순위를 나타냄.

자료: 연구진 작성.

한편, 〈그림 5〉를 보면 최근의 대분류 지수값을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에서도 칠레, 멕시코, 폴란드 등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 분류된다. 중분류 지수 또는 소분류 지수를 사용한 군집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대분류 기준 군집분석 결과(2017년)



주: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평균 연결법 계층적 군집분석의 덴드로그램임 (SPSS 18 사용).

자료: 연구진 작성.

〈표 7〉 OECD 국가별 평균 및 패널자료 기초통계량

국가명	국민 행복 수준 ( <i>Happiness</i> )	긍정적 요인 ( <i>P</i> )	부정적 요인 ( <i>N</i> )
Australia	0.671	0.582	0.704
Austria	0.651	0.540	0.717
Belgium	0.615	-	0.761
Canada	0.698	0.560	0.698
Chile	0.469	0.376	0.485
Czech Republic	0.494	0.443	0.720
Denmark	0.761	0.626	0.770
Finland	0.726	0.577	0.694
France	0.530	0.520	0.702
Germany	0.551	0.538	0.688
Greece	0.307	0.471	0.681
Hungary	0.195	0.388	0.716
Iceland	0.655	-	0.741
Ireland	0.621	0.551	0.733
Italy	0.449	0.474	0.668
Japan	0.403	0.494	0.649
Korea	0.353	0.420	0.482
Luxembourg	0.600	0.536	0.746
Mexico	0.556	0.371	0.579
Netherlands	0.709	0.555	0.688
New Zealand	0.675	0.570	-
Norway	0.728	0.618	0.775
Poland	0.354	0.383	0.581
Portugal	0.245	0.473	0.593
Slovak Republic	0.348	-	0.754
Spain	0.510	0.502	0.598
Sweden	0.685	0.585	0.689
Switzerland	0.727	0.603	0.678
Turkey	0.227	-	0.657
United Kingdom	0.581	0.536	0.695
United States	0.633	0.541	0.691
Mean	0.540	0.512	0.678
Min	0.102	0.346	0.459
Max	0.826	0.636	0.794
Std. Dev.	overall	0.172	0.074
	between	0.165	0.074
	within	0.056	0.014
Number of Observations (Time series)	403 (2005-2017)	351 (2005-2017)	390 (2005-2017)

자료: 연구진 작성.



## 2. 분석 결과

모형의 추정을 위한 종속변수는 국가별 행복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UN World Happiness Report의 주관적 행복 수준 값을 지수 산출에 사용한 LSM 방법을 사용하여 0~1 범위로 정규화하여 사용하였다. UN의 World Happiness Report 자료의 가용 시기는 2005~2017년 기간이므로 분석 기간 또한 해당 기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행복지표 분석대상 OECD 회원국 31개국 중 긍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을 구성하는 소분류 지수의 결측이 있어 지표시산에서 제외된 벨기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는 회귀분석에서도 사실상 제외하였다.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7>과 같다.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은 앞서 제시한 행복지표 상중하 그룹 구분 및 군집분석 결과 가장 빈번하게 한국과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된 멕시코, 칠레, 폴란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을 별도로 묶어낸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8>과 같다.

<표 8> 한국과 유사한 국가별 평균 및 패널자료 기초통계량

국가명		국민 행복 수준 ( <i>Happiness</i> )	긍정적 요인 ( <i>P</i> )	부정적 요인 ( <i>N</i> )
Korea		0.353	0.420	0.482
Chile		0.469	0.376	0.485
Mexico		0.556	0.371	0.579
Poland		0.354	0.383	0.581
Mean		0.433	0.388	0.532
Min		0.243	0.346	0.459
Max		0.701	0.434	0.617
Std. Dev.	overall	0.112	0.025	0.051
	between	0.099	0.022	0.056
	within	0.071	0.015	0.013
Number of Observations (Time series)		52 (2005~2017)	52 (2005~2017)	52 (2005~2017)

자료: 연구진 작성.

동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에 보다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pooled OLS 모형,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각각 추정하고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 분석에 가장 적합한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분석에 사용할 두 가지 패널자료에서 모두  $cov(x_{i,t}, u_{i,t}) = 0$ 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확률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는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 아니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을 통해  $u_i = 0$ 이 모든  $i$ 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pooled OLS 모형의 추정치 역시 일치추정량이 아니다.

〈표 9〉의 분석결과에서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긍정적 요인은 행복수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요인이 개선될수록 국민 행복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계수 값의 크기로 가늠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정도는 OECD 회원국 전체와 비교하여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의 경우가 오차범위내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변수인 부정적 요인의 경우 두 경우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음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는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9〉 패널회귀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UN Happiness Report 행복수준	
	OECD 회원국 전체	한국 유사 특성 국가 (한국, 멕시코, 칠레, 폴란드)
긍정적요인	1.502*** (0.287)	1.659*** (0.605)
부정적요인	-1.144*** (0.208)	1.734** (0.718)
상수항	0.547** (0.211)	-1.132** (0.424)
R <sup>2</sup>	within : 0.17 overall : 0.32	within : 0.25 overall : 0.02
F-statistic (p-value)	44.1 (<0.001)	29.6 (<0.001)
Number of obs.	338	52

주: 1)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계수 추정치에 대한 위첨자 \*\*, \*\*\*는 각각 유의수준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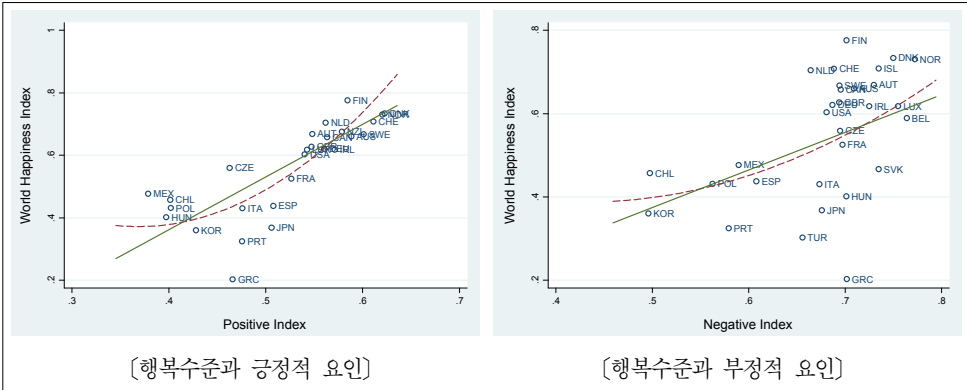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부정적 요인이 행복 수준에 유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 요인을 제외한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횡단면에서 행복 수준과 부정적 요인의 상관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림 6>을 보면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행복수준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은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또한 <표 5>와 <표 6>을 보면 행복 수준이 매우 높지만 부정적 요인은 다소 낮은 국가들이나, 부정적 요인은 상위권이나 긍정적 요인은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을 관찰할 수 있다.<sup>7)</sup> 둘째, 국가별 시계열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행복수준과 부정적 요인의 상반된 추세가 관측되었다. 행복수준이 감소 추세이나 부정적 요인은 완만히 개선되어가는 국가(덴마크,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있고, 반대로 행복수준이 증가 추세이나 부정적 요인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헝가리, 체코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결국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수준, 그리고 각각의 추세가 복합적으로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부정적 요인이 행복수준에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수 값의 크기가 긍정적 요인과 비교하여 오차 범위내지만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는 행복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긍정적 요인 뿐 아니라 부정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 연구의 ‘한국형 행복지표’ 개발에서 중점을 둔 것처럼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요인 뿐 아니라 부정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7) <표 5>에서 1990년 그룹 분류를 보면 긍정적 요인이 상위권인 국가들이 부정적 요인의 순위는 긍정적 요인의 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부정적 요인에서 상위권인 국가들은 긍정적 요인의 순위가 하위권인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요인은 상위권인 스웨덴(1위), 노르웨이(2위), 미국(4위)은 부정적 요인에서 12~17위로 중위권 수준이며, 부정적 요인에서 상위권인 체코(2위), 헝가리(3위), 폴란드(6위)의 긍정적 요인 순위는 22~27위로 하위권 수준이었다.

8) 국가별 선형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언급한 국가들은 부정적 요인의 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6〉 행복수준과 대분류 지수 비교(2017년)



자료: 연구진 작성.

## VI. 결 론

본고에서는 한국형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 행복의 증진 또는 저해 요인을 구분한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인의 행복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고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유사 지표들과 차별화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본고에서는 기존 행복지표와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 혹은 양극화 현상을 행복지표에 포함시켰다.

본 지표 체계를 활용해 OECD 국가 간 지표 변수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요인의 물질적 기반은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지만 부정적 요인의 물질적 격차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등 긍정적 요인은 지난 20년 간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소득 격차 및 고용 격차는 다소 악화된 양상을 드러냈다.

한편, OECD 회원국 간 지표의 수렴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물질적 기반은 회원국 간 수렴 현상을 보였지만 사회적 기반의 회원국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회원국 간 물질적 격차는 개선된 반면 사회적 격차의 간격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행복 수준을 OECD 회원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행복수준은 전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하위권 수준인데, 물질적 기반은 2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

받은 1990년에는 21위로 중위권 국가였으나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여 2017년에는 2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물질적 격차는 최근 다소 순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행복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위상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긍정적 요인 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물질적 영역 보다는 사회적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요인이나 사회적 영역은 최근까지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 못한 채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행복 결정 요인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관측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선정하여 한국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한국은 칠레, 멕시코, 폴란드 등과 함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모두 하위권에 속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어졌다. 또한 종속변수는 국가별 행복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UN World Happiness Report의 주관적 행복 수준 값을 지수 산출에 사용한 LSM 방법을 사용하여 0~1 범위로 정규화하여 사용하였다. UN World Happiness Report 자료의 가용 시기는 2005~2017년 기간이므로 분석 기간 또한 해당 기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에 보다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pooled OLS 모형, 고정 효과모형, 확률효과 모형을 각각 추정하고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 분석에 가장 적합한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두 긍정적 요인은 행복수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변수인 부정적 요인의 경우 두 경우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음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는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관심이 큰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행복수준에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계수 값의 크기가 긍정적 요인과 비교하여 오차 범위내지만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 유사 특성 국가들에서는 행복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긍정적 요인 뿐 아니라 부정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행복의 긍정적 요인 뿐 아니라 부정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시계열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를 성별격차와 세

대갈등에 국한하여 지표체계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지표에 부정적 요인의 고려가 중요함을 확인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가 보완되면 보다 적합도가 높은 행복지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참 고 문 헌

1. 강성진,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58집 제1호, 2010, pp. 5-29.
2. 김승권 · 장영식 · 조홍식 · 차명숙,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3. 심수진,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제21권 제3호, 2016, pp. 25-47.
4. 조병구 외,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5-02-01, 한국개발연구원, 2015.
5. 한국삶의질학회, 『국민 삶의 지수』, 한국삶의질학회, 통계청, 2017.
6. Helliwell, J., R. Layard, and J. Sachs, *World Happiness Report 2018*,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8.
7.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8. OECD Better Life Index datase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9. OECD,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how\\_life-2017-en](https://doi.org/10.1787/how_life-2017-en), 2017.
10. Osberg and Sharpe, “How should we measure the ‘economic’ aspects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1, Number 2, 2005, pp. 311-336.
11.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8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8>).
12. World Value Survey database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1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products/wdi>).

〈부 록〉

〈부표〉 세부변수 출처 및 원자료

세부변수명	원자료	출처	방향성
1인당GDP	GDP per capita, PPP (constant 2011 international \$)	World Bank WDI	↑
고용률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15+, total (%) (modeled ILO estimat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
교육수준	School life expectancy, primary to tertiary, both sexes (years)	UNESCO UIS statistics	↑
취학률	Gross enrolment ratio, primary to tertiary, both sexes (%)	UNESCO UIS statistics	↑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주거지수	Dwellings per 1000 inhabitants	OECD, New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
미세먼지	PM2.5 air pollution, mean annual exposure (micrograms per cubic meter)	World Bank WDI (Brauer, M. et al. 2016,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
기혼률	Crude marriage rate (marriages per 1000 people)	OECD stats, Family Database	↑
출산률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기관신뢰	각종 기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	World Value Survey	↑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	World Value Survey	↑
건강한 관계	Quality of support network	OECD Better Life Index (Source: Gallup World Poll)	↑
사회참여	사회적 활동을 위한 각종기구 가입 비율	World Value Survey	↑
근로시간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OECD stats,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Dataset	↓
문화여가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OECD Better Life Index	↑
자살률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population)	OECD (2018) Suicide rates;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
범죄율	Intentional homicide (rates per 100,000 population)	World Bank,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atabas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s International Homicide Statistics); 한국은 대검찰청 자료로 보완	↓
심리적안전	Do you feel safe walking alone at night in the city or area where you live?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Source: Gallup World Poll)	↑
지니계수	Gini (disposable income, post taxes and transfers)	OECD stat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	↓
십분위분배율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P90/P10)	OECD stats,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Dataset	↓
임시직 근로자 비중	Share of temporary employment	OECD stats, Incidence of permanent employment Dataset	↓
성별 교육격차	Gross enrolment ratio, primary and secondary, gender parity index (GPI)	UNESCO UIS statistics	↑
성별 고용격차	Gender gap of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Men - Wome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
성별 임금격차	Gender wage gap (Difference between median earnings, %)	OECD stats,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Dataset	↓
노인부양비	Age dependency ratio, old (% of working-age population)	World Bank WDI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청년실업	Youth unemployment rate (15-24) / Total unemployment rate	OECD Employment Outlook	↓
노인빈곤	65+ Elderly Poverty rate / Total Poverty rate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OECD stat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	↓

주: 방향성 ‘↑’표기는 높을수록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지표, ‘↓’표기는 낮을수록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지표.

자료: 연구진 작성.

〈부표〉 세부변수 특성 및 결측값 추정 방법

세부변수	가용기간 <sup>1)</sup>	속성구분 <sup>2)</sup>	결측값 추정방법 <sup>3)</sup>	
			내삽	외삽
1인당GDP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고용률	1991-2017	hard (ratio)	linear	step
교육수준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취학률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기대수명	1990-2015	hard (ratio)	linear	step
주거지수	1990-2015	hard (ratio)	linear	step
미세먼지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기혼률	1990-2014	hard (ratio)	linear	step
출산률	1990-2015	hard (ratio)	linear	step
기관신뢰	1990-2014	survey	step	step
타인에 대한 신뢰	1990-2014	survey	step	step
건강한 관계	2013-2017	survey	step	step
사회참여	1990-2014	survey	step	step
근로시간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문화여가시간	2013-2017	survey	step	step
자살률	1990-2015	hard (ratio)	linear	step
범죄율	1995-2015	hard (ratio)	linear	step
심리적안전	2007, 2012	survey	step	step
지니계수	1990-2015	hard (ratio)	linear	step
십분위분배율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임시직 근로자 비중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성별 교육격차	1990-2016	hard (ratio)	linear	step
성별 고용격차	1991-2017	hard (ratio)	linear	step
성별 임금격차	1992-2016	hard (ratio)	linear	step
노인부양비	1990-2017	hard (ratio)	linear	step
청년실업	1990-2017	hard (ratio)	linear	step
노인빈곤	2004-2015	hard (ratio)	linear	step

주: 1) 1990-2017년 기간 중 한국을 기준으로 한 자료 제공 기간을 의미함.  
2) ‘hard (ratio)’ 비율 변수 성격의 경성자료(hard data), ‘survey’는 설문 조사에 의한 연성자료(soft data)를 의미함.  
3) ‘linear’는 선형추정, ‘step’은 계단함수 추정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 Study on the Happiness of Koreans using a New Happiness Indicator

Myungho Park\* · Chanyul Par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to develop a new Happiness Indicator that assesses the happiness level and condition of the Korean people by systematiz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second, to identify which factors are determinant in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happiness level of Koreans compared to the OECD member countries. We found that positive factors of happines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levels for the OECD countries, while negative factors of happiness have a positive effect for Korea and similar countr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happiness indicator including the negative factors proposed in this paper is valid for understanding the happiness level of Koreans.

**Key Words:** Korean, happiness, indicator, positive factor, negative factor, OECD

**JEL Classification:** A10

---

*Received: July 30, 2019. Revised: Aug. 30, 2019. Accepted: Sept. 20, 2019.*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02450, Korea, Korea, Phone: +82-2-2173-2114, e-mail: mhpark@hufs.ac.kr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Development Management Center, Gyeongnam Institute, 248 Yongji-ro, Changwon, Geongnam 51430, Korea, Phone: +82-055-239-0188, e-mail: pcy@gni.re.kr